



우승한 박민지 박민지가 11일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설해원에서 열린 '셀트리온 윈즈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KPGA 제공

순천대 양궁 전국대회 금 3·동 1개

서보은 50m·60m 금메달...혼성단체전 금 수확



순천대학교 양궁팀이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순천대 양궁팀이 청주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제40회 회장기대학생양궁대회에서 금 3개, 동 1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자 리키브 대학부 개인전에 출전한 서보은은 50m에서 344점을 기록해 이예진(창원대·342점)과 김예후(경희대·339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60m에서도 2위 김서영(경희대·342점), 3위 이윤지(한국체대·341점)를 따돌리고 346점으로 1위를 기록해 이번 대회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 순천

대는 서보은과 김상현이 8강에서 계명대, 4강에서 경희대, 결승에서 한체대를 잇따라 이겨 금메달을 수확했다. 혼성 단체전에 출전한 서보은은 3관왕을 차지했다.

순천대는 여자단체전에서도 최민영·탁하윤·장인서·서보은이 출전해 8강전에서 광주여대(최예진·김정윤·오예진·이수연)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나 경희대에 아쉽게 패해 창원대와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순천대 김문선 양궁부 코치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을 적극 보완해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U-20 4강' 김은중호가 발굴한 보석들

무관심 속 출발 U-20월드컵 2회 연속 준결승
이승원·배준호·이영준·최석현 등 발굴



김은중 U-20 축구대표팀 감독

스타플레이어가 없어 무관심 속에 출항했던 김은중호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김은중 감독이 이끈 한국 U-20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FIFA U-20 월드컵 3·4위 결정전에서 이스라엘에 1-3으로 져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2019년 폴란드 대회(준우승)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이란 성과를 냈다.

사실 김은중호가 4년 전 정정용호에 버금가는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해외파 감독학(포르투갈)과 K리그1에서 꾸준히 나섰던 배준호(대전) 정도가 눈에 띄는 선수였고, 나머지는 무명에 가까웠다.

이강인(마요르카)과 같은 스타의 부재는 자연스럽게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애초 인도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가 본선에 오른 이스라엘의 입국을 거부한 인도네시아 내 무슬림의 반대에 부딪혀 아르헨티나로 개최지가 급하게 옮겨지면서 김은중호를 향한 기대는 더 차갑게 식었다.

대회 전 부상도 발목을 잡았다.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 소속인 이현주와 올해 초 U-20 아시안컵에서

활약한 공격수 성진영(고려대)이 부상으로 낙마했다. 또 배준호도 근육 부상으로 조별리그까지 완벽한 몸상태가 아니었다.

온갖 우려 속에 U-20 월드컵에 나선 김은중호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로 꼽힌 프랑스를 2-1로 누르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김은중호는 조 2위로 16강에 올랐고, 16강에서 에콰도르(3-2 승), 8강에서 나이지리아(1-0 승)를 차례대로 꺾고 2회 연속 4강 진출에 성공했다.

일본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조별

리그와 16강에 일찌감치 탈락한 가운데 한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준결승까지 살아남았다.

비록 이탈리아와의 4강에서 1-2로 분패했지만, 김은중호가 보여준 실리축구는 대회 내내 빛났다.

특히나 소속팀에서 기회가 적어 실전 감각이 부족했던 선수들의 기량을 최대한 끌어낸 것과 세트피스와 역습의 완성도를 높인 전술 운용은 단연 압권이었다.

김은중호는 이번 대회에서 총 10골을 기록했는데, 이중 6골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온 세트피스 득점이었

다.대회 전까지 원석이었던 선수들도 김 감독의 지도아래 보석으로 탈바꿈했다. 이른바 '골짜기 세대'로 불린 김은중호의 대반전이다.

'주장' 이승원(강원)은 이스라엘 전 페널티킥 득점을 포함해 3골 4도움을 올려 2019년 골든볼을 수상한 이강인(2골 4도움)을 넘어섰다.

또 U-20 월드컵에서 3번째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브론즈볼도 받았다.

이탈리아를 상대로 현란한 개인 기술을 뽐내 적장으로부터 찬사를 받은 배준호(대전)도 한국 축구를 이끌 차세대 미드필더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193cm 장신 공격수 이영준(김천)의 재발견과 대회 전부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브렌트포드 이적설이 돌았던 수비수 김지수(성남)와 이번 대회 2골로 '골넣는 수비수'란 애칭을 얻은 최석현(단국대)도 미래를 기대하게 했다.

선수 시절 왼쪽 눈 시력을 잃은 어려움 속에도 놀라운 득점력을 발휘해 '샤프'라는 별명을 얻었던 김은중 감독도 지도자로 확실한 족적을 남겼다.

무관심 속에도 묵묵히 어린 선수들을 이끌며 '원팀'을 만들었고, 대회 내내 한국을 괴롭힌 서연철은 관정에 도농정합을 유지했다.

한국 축구를 이끌 보석과 함께 확실한 색깔을 지닌 지도자를 얻은 것도 큰 수확이다. /서시

현대차 '2023 TCR 월드투어' 이탈리아 대회 우승

노버트 미첼리츠, 드라이버 순위 1위 기록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투어링카 대회 '2023 TCR 월드투어' 이탈리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는 '엘란트라 N TCR' (국내 명 아반떼 N TCR)이 지난 9~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캄파냐 발레롱가 서킷에서 열린 '2023 TCR 월드투어' 세 번째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회에서는 노버트 미첼리츠와 미켈 아즈코나 선수가 N TCR로 출전해 각각 1위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첼리츠는 총 65포인트를 획득해 2023 시즌 드라이버 순위 1위에 올랐고, 아즈코나는 51포인트로 4위에 자리했다.

9번의 레이스를 거쳐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한 상위 15명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리는 'TCR 월드파이널'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TCR 월드투어는 올해 개막전인 포르투갈 경기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호주, 마카오 등 4개 대륙 9경기를 진행한다.

현대차 N브랜드 & 모터스포츠사업부 팀 바렌베르크 상무는 "TCR 월드투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고성능 차량의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대회"라며 "두 번째 포디움을 달성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il.co.kr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끝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 동작분석 | 운동재활
-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FIT[GOLF 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